

1.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고인돌,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 ②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 ③ 실을 뽑는 데 가락바퀴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 ④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움집이 처음 나타났다.
- ⑤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 단계로 진입하였다.

정답: ①

* 청동기 시대상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팽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 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밑바닥이 편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빛깔은 적갈색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신분의 상하가 나타나는 계급 사회가 성립하였다. 부족을 통솔하는 족장(군장)은 농업 생산이 증대함에 따라 재산을 늘리는 한편, 청동제 무기를 이용하여 이웃 부족을 정복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이러한 군장들의 세력을 보여준다

남한 내의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는 부여 송국리(집터, 돌널무덤과 독무덤 유적, 비파형 동검, 송국리식 민무늬 토기)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여주 혼암리(탄화미 발견), 서천 화금리 유적(탄화미 창고 발견), 울산 검단리(환호형 촌락터) 등이 유명하다.

청동기인들의 주거 형태는 신석기 시대와 같은 움집이지만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 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② 생산력이 미약해 잉여생산물이 없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계급 없는 평등사회이다.

③, ④, 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운 원형의 움집(중앙의 화덕)에 처음 살기 시작하면서 뼈뼉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팽이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낫, 뼈낫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또,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2.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법으로 금하는 8조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도둑질을 하면 남자는 노(奴)로, 여자는 비(婢)로 삼는데, 용서받고자 할 때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 『한서』 지리지 -

- ①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 ② 형벌 제도가 마련되었다.
- ③ 사유 재산이 인정되었다.
- ④ 개인의 노동력이 중시되었다.
- ⑤ 죄를 지은 사람은 가족까지 처벌받았다.

정답: ⑤

* 8조법과 고조선의 사회상

고조선은 사회가 점차 분화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법(형벌)을 갖추게 되었다. 고조선에서 지키던 8조의 법 중 3개 조항이 전하고 있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
- 도둑질한 자는 그 집 종으로 삼는다. 스스로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게 한다. 그러나 스스로 노비를 면하여 평민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수치로 여겼다.

이를 통해 고조선이 노동력을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경이 발달한 사회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노비 소유자, 평민, 노비 등이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죄를 지은 가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3.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다.
- ② (가) - 단궁, 과하마, 반어피자 특산물이었다.
- ③ (나) -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④ (나) -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 ⑤ (가), (나) - 부족 간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정답: ③

* 초기국가 부여와 옥저

- 부여의 풍속으로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우제점법).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족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

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고조선의 8조의 법과 비슷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 함경남도 동해안 해안가에 위치한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옥저는 고구려에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고,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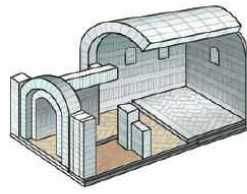
① 삼한에는 신지, 견지, 읍차, 부례 등의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②, 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4.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내부 모습



구조도

<보 기>

- ㄱ. 널길과 널방을 벽돌로 쌓았다.
- 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축조되었다.
- ㄷ. 도읍이 사비에 있었던 시기에 조성되었다.
- ㄹ. 봉분 하단부에 12지 신상을 조각한 돌레돌이 설치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백제 무령왕릉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중국 남조(양)의 영향을 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 특유의 무늬를 새긴 벽돌로 무덤 내부(널길, 널방)를 쌓은 무령왕릉은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고,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501~523)과 왕비임을 알려 주는 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수 있는 무덤이기도 하다.

왕과 왕비의 장신구와 금제 관식, 귀고리, 팔찌, 진묘수(수호 짐승) 등 3000여 점의 꺼묻거리가 출토되어 백제 미술의 귀족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사비 시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또한 백제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에도 벽과 천장에 사신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 통일 신라 시대에는 봉토 주위를 돌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5.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②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③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하였다.
- ④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다.
- ⑤ 낙랑과 왜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정답: ⑤

* 가야의 역사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 되었고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세기경 이들 사이의 통합이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 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김수로에 의하여 건국 되었는데(42, 관련 '구지봉' 설화 삼국유사에 '가라국기'에 수록),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쳤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4세기 초부터 백제(근초고왕)와 신

라의 팽창(내물왕)에 밀려 전기 가야 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말~5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하여 가야의 중심 세력이 해체되고,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가야 연맹은 5세기 초에 크게 변화였다.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면, 그 동안 낙후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산간 지대에서 그간 수도작(水稻作) 농경과 야철술을 배경으로 실력을 양성하였고, 5세기 후반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여 소국의 할거 속에, 이후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특히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의 진출로 후기 가야 연맹은 분열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신라에 정복당하였고(532, 법흥왕),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결국,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면서(562, 진흥왕) 가야 연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① 동맹(10월)은 고구려의 제천행사

② 부여는 마가.우가.저가.구가의 대가들이 왕과 함께 5구역을 나누어 다스렸다.

④ 만장일치 귀족회의체인 화백회의는 신라이다.

6.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①

* 발해의 문화유산

발해는 도읍지를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정혜 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줄임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다. 이 곳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정효 공주 묘에서는 묘지와 벽화가 발굴되었다. 무덤에서 나온 이런 유물은 발해의 높은 문화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또 궁궐 터나 절터를 통하여 당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상경은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 대로를 내고,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을 세웠다. 이와 같은 당 문화적 건축물로 길림 장백진 교외에 소재한 '영광탑'이 있는데, 13미터 높이의 5층 벽돌 탑이다.

궁궐 중에는 온돌 장치를 한 것도 발견되었다. 사찰은 높은 단 위에 금당을 짓고 그 좌우에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이 건물들을 회랑으로 연결하였다.

조각은 궁궐 터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발해의 벽돌과 연꽃무늬 기와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상경에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석등은 발해 석조 미술의 대표로 꼽힌다.

발해에서도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 많은 불상이 제작되었다. 상경과 동경의 절터에서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상도 발굴되었다. 이 불상은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이불병좌상).

① **이불병좌상**: 발해 동경성 출토. 흙을 구워 만든 두 분의 부처(석가불, 다보불)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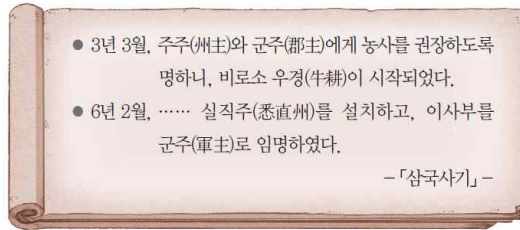
②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된 고구려 불상. 연가 7년(延嘉七年)이라는 고구려 관련 연호가 새겨져 있고, 삼국시대의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예로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④ **삼산관(三山冠)을 쓴 금동미륵보살 반가상(국보 83호)**: 백제 또는 신라의 불상.

⑤ **광주 춘궁리 철불(보물 332호, 현재는 하남 하사창리 소재)**: 1m 대좌 위에 2.8m 높이의 대형 철불. 고려 초기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 철불이다.

7.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독서삼품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 ②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③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을 확립하였다.
- ④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⑤

* 신라 지증왕의 업적

지증왕(500~514)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503).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주·군제 실시, 소경 설치), 대외적으로는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사회·경제적으로는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실시하였으며(502), 시장 감독기구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509).

① 신라 원성왕(785~798) 때에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였다(788).

② 신라 중대 신문왕(681~692) 때에는 전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9년(689)에 녹읍을 폐지하였고 녹읍을 대신하여 조(租)의 수취만을 허락하는 관료전(687)이 주어졌다.

③ 내물왕(356~402) 때, 신라는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고,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④ 병부와 상대등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와 공복의 제정(520)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여(527)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536)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가) - 감은사지 3층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였다.
 ㄴ. (가) - 내부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ㄷ. (나) -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갖추고 있다.
 ㄹ. (나) - 기단과 탑신에 불상이 돌을새김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불국사 경내의 석가탑과 다보탑

8세기 중엽에 세워진 불국사(751)의 대웅전 영역은 묘법연화경(법화경)의 세계를 다보여래(과거불)를 상징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과 기단이나 탑신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역사적 불)를 상징하는 석가탑(3층 석탑)으로 구현하였다.

즉 역사적 부처인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석가여래의 말이 참됨임을 입증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

특히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 경주 감은사지 3층 석탑(국보 112호)은 2층의 기단에 사각형으로 쌓아올린 3층 석탑으로, 동·서 두 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이다. 많은 석재를 이용한 수법은 백제의 석탑과 같으나, 그것이 목조탑파를 충실히 모방한 것인데 반해 이 석탑의 조형수법은 기하학적으로 계산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감은사는 682년(신문왕 2년)에 창건되었으므로 이 탑의 건립도 그 무렵으로 추정되는 오래되고 거대한 석탑으로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으로 이어졌다.

㉡ 진전사지 3층 석탑(국보 122호)은 전형적인 통일신라기의 3층 석탑이나 기단과 탑신에 부조(돌을새김)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이름이 나있다. 진전사는 선종을 도입한(821) 도의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어 9세기 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9. 밑줄 그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 ② 중앙군으로 9서당을 설치하였다.
- ③ 대구모 사찰인 미륵사를 건립하였다.
- ④ 신라에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펼쳤다.
- 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⑤

*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궁예(?~918)는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진표의 미륵신앙을 통해 농민층의 기반을 갖고 있던 궁예는 기현에 투신하였으나, 곧 양길의 휘하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복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을 토대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가(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정개)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으;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궁예는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이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① 진흥왕(540~576)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북한산, 창녕, 마운령, 황초령)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② 통일신라의 중앙군의 핵심은 옷깃 색을 달리한 9서당이였다. 진평왕 때(583)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효소왕 때(693)에 완비되었다. 9서당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람은 물론 말갈족까지 포함하여 민족 융합을 꾀하기도 하였다.

③ 서동 설화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600~641)은 634년 왕흥사를 창건하고(최근에 577년 위덕왕 때로 수정됨), 궁남지를 건설하였으며, 미륵사(601)를 건설하는 등 토목공사를 자주 벌이고 신라와의 전쟁이 잦아 국력이 소모되는 등 실정이 잦았다.

④ 궁예는 신라에 대한 적대 감정이 강하여 신라 왕실의 주도 하에 진골 출신 의상이 세운 화엄종의 본찰 영주 부석사에 들렀을 때 그 안에 있던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훼손하면서 반신라 감정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 신라에 적극적 우호 정책을 펼쳐 신라가 스스로 항복케(935) 한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877~943)이다

10. 다음 자료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제1과는 중서령, 상서령, 문하시중으로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을 주며, 제2과는 문하시랑, 중서시랑으로 전지 90결과 시지 45결을 주고, 제18과는 한인(閑人), 잡류(雜類)로 전지 17결을 주었다.

- 「고려사」 -

- ①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 ②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양전을 지급하였다.
- ③ 개국 공신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하였다.
- ④ 전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관리의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 ⑤ 현직 관리에게 전답과 임야를 분급하여 수취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다.

정답: ⑤

* 고려 경정 전시과(1076)

고려 태조 때에 개국공신들의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940).

이후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는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1/10 수조)만 갖는 토지였고, 경기와 양계를 제외한 그 밖의 외방 주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수조권자의 중복을 막음)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때에 지급량을 줄이고(998, 개정 전시과,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전직+현직에게 지급),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1076, 경정 전시과, 무반 대우 향상).

①, ② 조선의 과전은 원칙적으로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고,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다.

④ 고려 중기 이후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고, 몽골과의 전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관리에게 녹봉 대신 등급에 따라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나누어 주었다. 사전의 하나로, 소유자는 경작자에게서 전조만 받았다.

11. 밑줄 그은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훈요 10조

5조 나는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이곳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만대 왕업의 땅이다. 마땅히 계절마다 가서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안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① 남진 정책을 펴던 장수왕 때에 고구려의 도움이 되었다.
- ② 임진왜란 때 조·명 연합군에 의해 왜군으로부터 탈환되었다.
- ③ 조선 후기에 청나라와 대외 무역을 전개한 만상의 근거지였다.
- ④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⑤ 일제 강점기에 조만식 등의 주도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

정답: ③

* 평양의 역사

평양은 옛 고조선과 고구려의 후기 수도(장수왕 때에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천도, 427)이자 고려 때에는 태조 때부터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중시되어 서경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개경과 유사한 중앙부서의 분소를 설치하는 제도인 분사제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인종 때에 서경 천도를 주도하였던 묘청은 이 운동이 실패하자 난을 일으켰고(1135), 명종 때에는 무신 정권에 반대하여 조위총의 난(1174)이 일어나며,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차별받게 되었다.

조선 후기 때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이 지역으로 중심으로 유상이 활동하였다.

② 임진왜란 때에 명의 원군이 도착하자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였다. 평양성에서 조.명 연합군(김응서 장군, 서산.사명 대사 활약)은 크게 승리하였다(1593.1.6.).

③ 조선 후기 대청무역을 주도한 것은 의주의 만상이다.

④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상륙하여 약탈을 하다 군민들에 의해 불태워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은 1866년 7월 평양 대동강에서 일어났다.

⑤ 1920년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애용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12. 지도에 표시된 군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퇴각하는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
- ② 고구려 부흥 운동군을 후원하면서 당에 맞서 싸웠다.
- ③ 서경 천도와 금국 정벌을 주장한 세력을 토벌하였다.
- ④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며 침략한 거란을 격퇴하였다.
- ⑤ 개경까지 쳐들어와 악랄을 일삼던 홍건적을 축출하였다.

정답: ③

* 김부식의 요청의 난 진압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1075~1151)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① 고구려 영양왕(590~618) 때에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나라군을 크게 무찔렀다(612).

② 신라 문무왕(661~681)은 당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자,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을 후원하는 한편,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나.당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④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쳐들어 온 거란의 3차 침입(1018) 때에는 강감찬이 지휘한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켰다(귀주대첩, 1019).

⑤ 원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일어난 한족의 농민 반란군인 홍건적이 쳐들어와 1차 침략(1359) 때에는 서경이 함락되고, 2차 침략(1361) 때에는 개경까지 침입해 오자 공민왕은 멀리 안동까지 피란을 가기도 하였으나, 정세운, 안우, 이방실, 최영, 이성계 등이 나아가 격퇴 하였다.

13.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무애가를 만들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 ③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 ④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 ⑤ 교관검수를 내세워 교선 통합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였다.

정답: ④

* 선교일치를 추구한 보조국사 지눌

지눌(1158~1210)은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에 활동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기강이 무너져 하극상 풍조와 농민들에 대한 수탈 심화와 불교의 타락, 그리고 농민, 하층민, 천민, 문신세력 등의 반란이 있는 등 사회가 어지러웠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지눌이 수선사를 열면서부터 매우 흥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중심적인 종파가 되어 많은 승려를 배출하였다.

지눌은 선(禪)과 교(敎)학이 근본에 있어 둘의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관련:

권수정혜결사문). 또,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禪敎)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① 원효(617~686)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즉 계(戒: 불교 계율)를 잃어 설총을 낳은 이후로는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자신을 소성거사라 하며 속인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광대들이 큰 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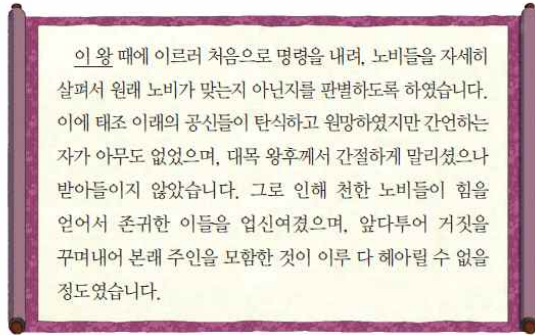
② 의상(625~702)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여 통일 직후 전제왕권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화엄학의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을 서술한 그림시인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系圖)가 유명하다.

③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고,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⑤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이 극심할 때 의천(1055~1101)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 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14.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별무반을 보내어 여진족을 정벌하였다.
- ②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③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④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 ⑤ 관학 진흥을 위해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정답: ③

*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광종의 업적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혜종(943~945)과 정종(945~949)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예: 왕규의 난).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960).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① 고려 숙종(1095~1105) 때에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자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예종 때에는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②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호장·부호장 등의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983).

④ 공민왕은 1356년에 반원자주정책의 일환으로 무력으로 쌍성총관부(철령 이북)를 수복하였다

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였다.

1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기간: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〇〇일
 ● 장소: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 내용: [전시] 진본 유물 8점 전시
 [체험] 판각 및 인쇄 체험
 [특강] 장경판전의 과학적 원리

<보 기>

- ㄱ. 주자소에서 제작을 담당하였다.
 ㄴ. 거란 격퇴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다.
 ㄷ.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ㄹ.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고려 재조 대장경(팔만 대장경)

고려 시대에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 체계가 정비되면서 불교에 관련된 서적을 모두 모아 체계화하는 대장경이 편찬되었다. 경·율·논의 삼장으로 구성된 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교리 체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의의가 높은 유산이다.

현종 때에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는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려고 대장경을 간행하였다(초조 대장경). 70여 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목판에 새겨 간행되고 부인사에 보관되던 이 초조대장경(1011~1081)은 몽골

의 2차 침입(1232) 때에 불타 버리고 인쇄본 일부가 남아 고려 인쇄술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 대각국사의원은 고려는 물론이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1091).

1231년부터 고려는 40여 년 동안 몽골과 전쟁이 시작되자, 1차 침입 강화 후, 1232년 최우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도에서 재조대장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고종 23년(1236)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개태사 주지 수기의 지휘하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에 완성하였다.

이 대장경은 8만 장이 넘는 목판이므로 팔만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았으면서도 잘못된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는 제작의 정밀성과 글씨의 아름다움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꼽힌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은 우수한 기록 보존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국보 32호)'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 고려 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된 금속 활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더욱 개량되었다.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1403).

16.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왜구가 배 500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여러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배들을 불태우자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가렸다.

1270	1351	1392	1510	1592	1627
(가)	(나)	(다)	(라)	(마)	
개경 환도	공민왕 즉위	조선 건국	삼포 왜란	임진 왜란	정묘 호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최무선의 화포가 사용된 진포 대첩

고려 말에 최무선(1325~1395)은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에는 화약 무기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화약 제조 기술의 습득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화약 제조 기술을 비밀에 붙여서 고려에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최무선은 끈질기게 노력하여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였다. 이에, 고려는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1377).

최무선은 이 화포를 이용하여 우왕 6년(1380년) 진포(금강하구) 싸움에서 나세의 지휘 하에 500여척의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화포와 같은 화약 무기의 제조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얼마 후에는 20 종에 가까운 화약 무기가 만들어졌다.

17.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왕자의 난이 일어나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
- ②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 ③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 사화가 일어났다.
- ④ 도화 정치를 주장한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가 제거되었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

정답: ④

* 위훈삭제와 기묘사화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사림이라 부른다.

김종직과 그 문인이 성종 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연관직(연론과 문한 담당)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성종을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가 발단이 되어 발발한 무오사화(1498), 연산군의

의 생모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발한 갑자사화(1504)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 고자 하였다.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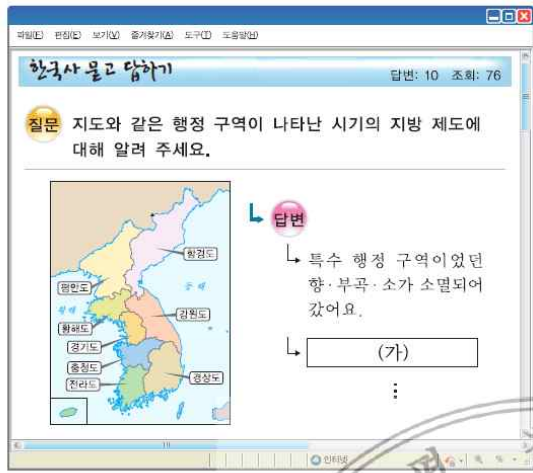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외척끼리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1545). 그러나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① 이방원(태종)은 1차 왕자의 난(1398)에서 세자 방석을 후원하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시도하는 정도전을 제거하였다.

② 세조 때(1456)에 단종 복위 운동에 집현전 출신 자들(성삼문, 박팽년 등)이 대거 연루되어 처형되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 이듬해 처형되었다.

1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각 도에 안찰사를 보내어 지방 행정을 감찰하였어요.
- ② 지방 호족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심관을 임명하였어요.
- ③ 수도의 위치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 5소경을 두었어요.
- ④ 향리가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하되었어요.
- 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어요.

정답: ④

* 8도 지방 체제가 성립된 조선 시대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고, 지방관은 임기제(관찰사 1년, 수령 5년)와 상피제(출신지에 부임 못함)를 적용하여 통제하였다.

한편,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①, ②, ⑤ 고려는 국초 태조 때에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후 성종 때(983)에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며, 현종 때(1018)에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도에는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군·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③ 통일 신라기에는 군사·행정상의 요지에는 5소경(장관 사신)을 설치하여, 수도인 금성(경주)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였다.

19.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서인이 역모를 고발하여 허적과 윤휴 등이 처형되고, 수많은 남인이 관직에서 쫓겨났다.

(나) 남인 대신들의 관직이 삭탈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하였으며 인현 왕후가 복위되었다.

- ①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 ② 복인이 서인과 남인을 누르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③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 ④ 원자의 명호(名號)를 정한 것에 반대하여 서인이 축출되었다.
- ⑤ 소론의 지지를 받은 희빈 장씨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였다.

정답: ④

* 기사 환국(1689)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약(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송시열 등 사사.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 소론) 재집권

① 선조 때(1589)의 기축옥사(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 동인에 대한 옥사)로 서인이 일시 집권하였다.

② 광해군(1608~1623)과 복인 정권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였다.

③ 현종(1659~1674)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였다.

⑤ 갑술환국(1694) 이후 남인이 완전 축출되고 폐비 사사된 고립무원의 장희빈 소생 세자를 지지하는 소론과 숙종의 총애를 받는 간 숙빈 최씨 소생 연잉군(후일 영조)을 지지하는 노론 간의 대립 속에 숙종이 죽자, 결국 세자가 왕위(경종)에 올랐다(1720)

20. 밑줄 그은 '우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우리들은 짐을 메고 지고 다니면서 장사하여 먹고 산다. 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때로는 병들어 객점에 눕기도 하고, 심지어 길바닥에서 죽기도 한다. 서로 소식을 듣는 대로 달려가 힘써 도우니, 비록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더라도 형제나 마찬가지다.

- ① 시전에서 영업하며 금난전권을 행사하였다.
- ② 상단을 형성하여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 ③ 공가를 받아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납품하였다.
- ④ 포구에 자리 잡고 중개·금융·숙박 등의 영업을 하였다.
- ⑤ 주로 한강을 무대로 세곡 수송과 곡물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정답: ②

* 보부상

15세기 말 남부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지방민의 교역 장소로, 인근의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인근의 장시와 연계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장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상인은 보부상인데, 보부상이란 봇짐장수와 등 짐장수를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굳게 하기 위하여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① 서울 도성의 상인인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조선 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종루, 칠패, 배오개(이현),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자 시전상인들은 국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행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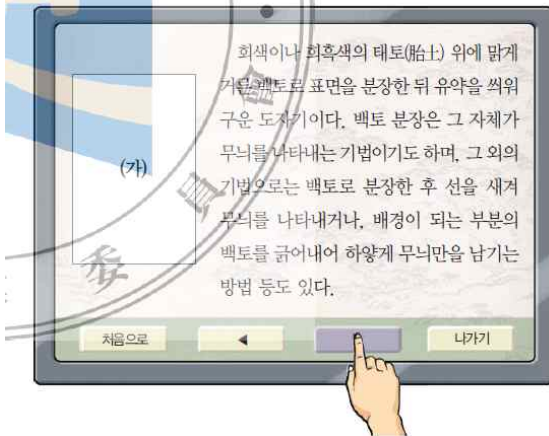
③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④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⑤ 조선 후기 사상도고(私商都賈) 중 하나인 경강 상인은 한강을 무대로 한 선상으로 주로 세곡과 미곡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21.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①

* 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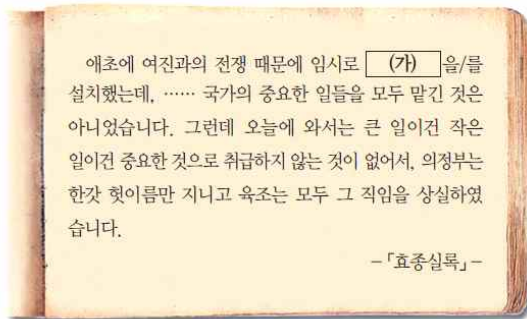
조선 초기에는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 안정된 그릇 모양과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며 실용적이었다.



- ① 분청사기 박지태극문 편병 (보물 1455호)
- ② 청자 소문과형병 (국보 94호)
- ③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국보 68호)
- ④ 청화백자 매죽문호 (국보 170호)
- ⑤ 백자 달항아리 (보물 1437호)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영의정을 비롯한 3정승의 합의 체제로 운영되었다.
- ② 명종 대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되었다.
- ③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총괄 기구로 부상하였다.
- ④ 세도 정치 시기에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 ⑤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혁파되었다.

정답: ①

* 비변사

중종 때 3포 왜란(1510, 지변사 재상 소집)이 일어나자 임시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였고(1517년 설치), 명종 때 을묘 왜변(1555)이 일어나자 1555년 정식 관청으로 승격되며 상설기구가 되었다.

비변사는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임진 왜란을 거치며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전.현 의정,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대제학, 5군영대장, 4도 유수),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의 제반 사무를 소수의 당상들이 회의하여 결정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세도정치기에는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고종 때에 흥선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후 3군부(三軍府)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지되었다(1865).

- ① 영의정과 좌.우 3정승의 합의 체제 기구는 의정부이다.

23. 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양역이 불균등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이제부터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라.



- ①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
- ②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 ③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④ 금위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 ⑤ 봉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정답: ⑤

* 군역법을 실시한 영조의 업적

탕평 정치는 영조 때(1724~1776) 자리잡았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 교서(1725)를 반포하고,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봉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다(1742).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 봉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완론 탕평). 그리고 봉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그러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이후 정조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정국이 안정되자, 영조는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군역법(양인의 군포 부담을 장정 1인당 2필에서 1필로 감축)을 시행하였고(1750),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속대전(1746)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도 정리하였다.

①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때(1455)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다(1484년 완성, 1485년 반포).

②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은 광해군 때에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659년 김육의 건의로 삼남 지방으로 확대, 1708년 숙종 때에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③ 효종(1649~1659) 때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군대를 양성하던 중, 연해주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격퇴기 위해 청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여 북벌 훈련 중의 조선 군사(조총병)을 보내어 청나라 군사와 함께 2차례의 정벌(나선 정벌)에 나서 큰 전과를 올렸다(1차: 1654-변급, 2차: 1658-신유).

④ 조선 후기 중앙 5군영은 임진왜란 때에 훈련도감(1593)을 시작으로 어영청(1623, 수도 방위), 총융청(1624, 경기 북부 방비), 수어청(1626, 남한산성 방비) 등이 설치되었고, 숙종 때에 금위영(1682, 궁궐 방위)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24.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어요.
- ② 서양의 과학 지식과 기술이 전래되었어요.
- ③ 만권당을 통해 성리학 관련 서적들이 들어왔어요.
- ④ 화북 지방의 농법을 집대성한 농상집요가 소개되었어요.
- ⑤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의 풍습이 받아들여졌어요.

정답: ②

* 조선 후기 연행사를 통한 외래문물 수용

연행사(燕行使)는 조선 후기 명·청에 보낸 조선 사신의 총칭이다.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조천사(朝天使)라 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의 도읍인 연경(燕京: 북경)에 간 사신이란 의미로 연행사라 했다. 같은 명, 청의 수도인 북경을 향해 사신이 가지만, 명에 대해서는 천조(天朝)인 중국에 조근(朝覲: 신하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뵈)하는 사행이라는 사대적인 뜻이 더 강하다.

명말청초인 17세기 초부터 이광정, 허균, 정두원 등이 연경 거주 예수회 선교사인 서양 인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질적인 서양의 과학 지식이 조선으로 전래하였다.

이들을 통해 전래된 것은 한역(漢譯)된 지도, 천문서, 역법서, 산학서와 천리경, 자명종, 서양화포 등이다.

특히 영·정조 대에의 중상적 실학자인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연행사로 다녀온 뒤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북학파 사상으로 이어졌다.

①, ③, ④, ⑤ 고려 말 원의 간섭기(1270~1351)에는 원의 호복변발이 강요되어 지배층에 수용되었고, 원의 수도 북경을 통해 외래 문물이 전래·교유되었다.

북경에 장기간 체류하던 충선왕은 북경에 만권당(1314)을 설립하고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또한 원의 역법인 수시력을 채용하고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소화하였다.

충정왕 때에 이암은 화북 농법을 집대성한 농서인 농상집요(1349)를 소개하였다.

25.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전라도 진산에 거주하던 윤지충은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으며, 어머니 상을 당하자 조문을 거절하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는 이 일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천주교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으나, 거부하여 결국 처형당하였다.

1636	1728	1776	1811	1866	1876
(가)	(나)	(다)	(라)	(마)	
병자 호란	이인좌의 난	정조 즉위	홍경래의 난	병인 양요	강화도 조약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진산 사건과 신해년(1791) 천주교 박해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광해군 때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마테오리치가 지은 <천주실의>를 소개하면서 불교와의 차이점을 언급하였고, 유몽인은 <어유야담>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유교, 불교, 도교와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이벽, 권철신, 정약용의 형제들)의 일부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1784)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신후담, 안정복 등은 배격론의 입장이었다. 특히 안정복은 <천학문답>을 저술하여 천주교를 비판하여 공서학파라 불리웠다.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때에는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전북 진산 윤지충의 신주 소각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신해박해(1791) 때에는 윤지충, 권상연을 사형에 처하는 한편 홍문관 소장의 서학서를 소각하고 천주교 서적 소지자를 장악사서죄로 유배시키는 등 천주교의 전파를 억제하는 데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국왕인 정조와 남인 재상 체제공의 경우 정학을 강화시키면 사학은 자연히 소멸한다는 입장에서 온건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이상의 대책이나 사상 통제의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다.

26.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자주 묻는 질문방

Q. 질문
이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답변
(가)

대장간(김홍도)

<보 기>

ㄱ. 목화가 중국에서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ㄴ. 지대의 액수를 정해서 납부하는 도조법이 확산되었습니다.
 ㄷ. 벼농사에서 이앙법이 널리 퍼지면서 광작이 유행하였습니다.
 ㄹ. 전세는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뉘어 농민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풍속화가 유행한 조선 후기 경제상

- 김홍도, 신윤복 등에 의해 조선 후기에 유행한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 조선 후기에는 농민들은 모내기법(이앙법)을 확대하였다.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되자,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였고(광작),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 자작농은 물론 일부 소작농도 더 많은 농토를 경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다. 이전보다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된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 소작 농민은 좀 더 유리한 경작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하여 지주에게 대항하여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작권을 인정받아 지주가 함부로 소작지를 빼앗지 못하고, 정률제로 수확량의 반을 내던 소작료도(타조법) 일정 액수(정액제)를 곡물이나 화폐로 내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도조법).

㉠ 우리나라의 목화 재배는 고려 말 1363년(공민왕 12) 문익점이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귀국할 때 목화씨를 얻어 붓통에 넣어 가지고 와서 그의 장인 정천익과 함께 재배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 조선 전기 세종은 합리적인 전세 제도로 공법(貢法)을 마련하였다(1444). 이에 따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급, 연분 9등급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27.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대저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은 데다가 물길이 사방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동전이 필요치 않다. …… 지금 동전을 사용한 지 겨우 70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폐단이 매우 심하다. 동전은 탐관오리에게 편리하고 사치하는 풍속에 편리하며 도둑에게 편리하나, 농민에게는 불편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궤미를 차고 저잣거리에 나아가 무수한 돈을 허비하니, 인심이 날로 각박해진다.

- 「성호사설」 -

- 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② 사변록을 통해 주자의 경전 해석을 비판하였다.
- ③ 지방 행정의 개혁안을 담은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 ④ 영업전 설정 및 매매 금지를 주장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 ⑤ 발해고를 저술하여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넓혔다.

정답: ④

* 폐전론을 주장한 성호 이익(1681~1763)

조선 후기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고(성호 학파: 안정복, 권철신 등), 이종환,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백과 사전류의 저서인 <성호사설>의 광우록에서 한전론(限田論: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6종: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익은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천행(천동)설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구의 자전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봉당론: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에서 발생한 이해득실로 양반은 증가하는데 관직은 일정한데에 따른 선비들의 먹이 다툼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반의 수와 특권을 제한해야 하고, 양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는 사농합일론(士農合一論)을 주장하였다.

소농 보호책: 폐전론(廢錢論), 상공업 억제, 1/10세, 사창제 실시 - 유통 경제의 발전이 농촌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역사 인식: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시세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단군->기자->삼한(마한)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은 제자인 안정복에게 계승되었다.

①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 학파로 발전시켰다.

② 정조 때 서얼 출신 유득공(1748~?)은 '발해고'(1784)에서 발해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다루며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까지 넓혔다.

③ 소론계의 유학자 박세당(1629~1703)은 저서 <사변록>에서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자의 해석과는 달리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해석을 내려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리었다.

⑤ 실학을 집대성한 중농적 실학자 정약용(1762~1836)은 지방행정의 개혁안을 담은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28.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역사 신문

제△△호 임술년 2월 ○○일

진주에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하기로!

지난 2월 19일에 진주의 백성이 큰 무리를 지어 이서(吏胥)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환곡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수습하고자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 ①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하였다.
- ② 지방관과 향리의 착취가 원인이었다.
- ③ 전국 각지의 농민 봉기로 확산되었다.
- ④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농민 자치 기구인 집강소 운영으로 일단락되었다.

정답: ⑤

* 진주 민란(1862)

세도정치 하 농민봉기는 철종 때에 가장 심하여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흥,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확대 되었다(1862년 임술농민봉기).

이 때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1862)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과 향리들의 수탈(엄청난 환곡 전횡)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이 시기의 농민봉기는 대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그 규모나 양상도 비슷하였다. 즉, 전정, 환곡, 군포 등 삼정과 결세(結稅), 각종 잡세 등과 관계된 내용이 중심이고, 특히 환곡의 폐단이 심하였다. 처음에는 관청에 호소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봉기한 것이다.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1862)이 설립되어 이 정청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정과 전정은 옛 제도를 기본으로 그 폐단만을 고치며,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이정절목>을 책으로 내면서 철 폐되고, 그 뒤 삼정 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었다.

⑤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 때에 전주성 함락 후 청·일 양국군이 출동하자,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전주에서 정부와 화약을 맺고(1894.5) 일단 해산하였다(1894.5). 이 때 정부 측에 폐정개혁안을 제출하고 집강소라는 자치행정 기구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1894. 5~9).

2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문화재 카드

- 종목: 국보 제55호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 소개: 상륜부를 갖춘 다층의 높은 건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조선 시대 목조탑이다. 통층으로 구성된 건물 내부에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표현한 불화가 그려져 있다.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



마곡사 대웅보전

정답: ①

* 법주사 팔상전

17세기의 건축으로는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62호, 1635),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1702, 국보 67호),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 1605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묘사한 불화 소재)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③ 무량사 극락전 (보물 356호): 충남 부여 소재. 인조 때 중건된 건물. 외관상 중층으로 보이나,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

⑤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801호) 충남 공주 소재. 17세기 건물. 중층 다포계 팔작 지붕.

30. 밑줄 그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보내졌다.
- ② 귀국할 때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 ③ 서양 국가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었다.
- ④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 ⑤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정답: ③

* 개항기 대미 사절단 보빙사

개항(1876, 강화도 조약) 직후 그 후속 조치로 김기수(1876)와 김홍집(1880, 귀국 때 조선책략 갖고옴)를 일본에 수신사(공식 외교 사절)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개화 정책 추진기구인 통리기무아문(1880)을 설치하고, 통리기무아문은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근대적 행정 기구의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朝士) 사찰단을 파견하였다(1881).

조사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 모두 62명으로 구성된 이 사찰단은 당시 개화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파견되어 일본 정부 각 기관의 사무를 조사하고 산업·군사 등 근대적 시설을 두루 살펴보았다. 또, 미국과의 수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으며, 개항에 대비하여 세관 사무를 조사하였다.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이 되었다.

귀국 후 일행의 대부분은 통리기무아문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일부는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어 근대적 학문과 기술을 익혔다(유길준, 윤치호).

통리기무아문은 영선사 김윤식을 청나라에 보냈다. 그는 38명의 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끌고 텐진 기기국에 가서 서양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1881). 하지만 학생들의 근대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1883).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5)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1883).

민영익, 홍영식이 이끄는 보빙사 일행은 서양 국가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단으로 40여 일의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을 시찰하였다.

31.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우리 고장 역사 특강

금강을 끼고 있는 백제의 고도로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아보는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월○○일~○○월○○일
매주 수요일 14:00

○ 장소: △△시청 강당

○ 특강 내용

	시대	주제
1강	선사	(가)
2강	삼국	(나)
3강	통일 신라	(다)
4강	고려	(라)
5강	조선	(마)

- ① (가) - 석장리 유적과 구석기 시대
② (나) - 웅진 천도와 백제의 재도약
③ (다) - 김현창의 난과 왕위 쟁탈전
④ (라) - 삼별초의 봉기와 대몽 항쟁
⑤ (마) - 우금치 전투와 동학 농민 운동

정답: ④

* 공주의 역사

선사: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남한 최초 (1964)로 발굴된 선사 유적지로, 가공기술 정도로 파악해보면 전형적인 후기 구석기 유적지이지만 전기~후기까지 모두 출토된 특징이 있다

삼국: 고구려에 의해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문주왕 때에 금강의 웅진으로 천도하여 무령

왕 때에 국력을 많이 회복하였다. 지석을 통해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식 무덤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많은 부장품을 갖고 있다(송산리 고분군 소재).

통일신라: 9세기 전반 헌덕왕(809~826) 때에 아버지 김주원(무열왕계)이 김경신(원성왕계)에게 왕위쟁탈전에 패하자, 그 아들인 웅주(공주) 도독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켜(825)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으로 하였고, 뒤이어 김현창의 아들 김범문이 (북)한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825), 모두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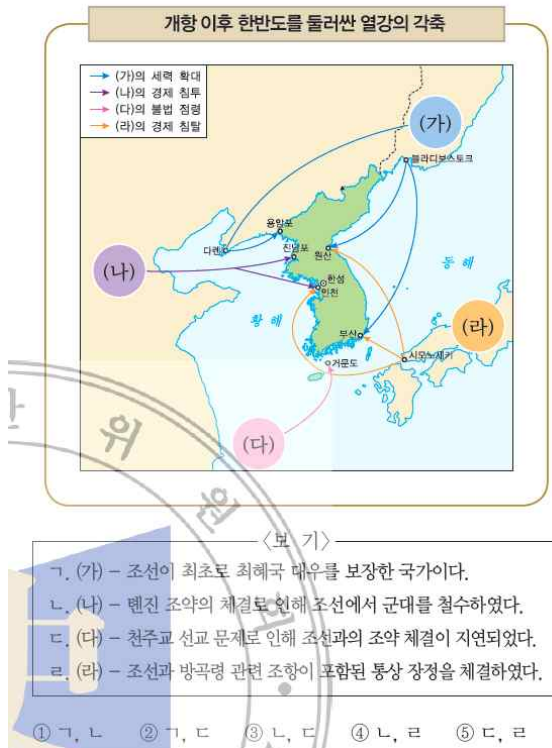
고려: 무신 정권 초기 수탈에 시달리던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1176).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조선: 동학농민운동 때에 농민군은 전주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경북 공을 침범하며 침략 행위를 노골화하자,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다시 일어났다(1894.9).

서울을 향해 상하던 농민군은 논산에서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군과 합세하여 대본영을 이루고,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하여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할 수 없어 많은 희생을 치른 채 물러나고 말았다(1894.11).

④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1270),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진도(용장성)에서 봉기하였고, 그의 사후에는 김통정이 제주도(향파두리성)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개경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다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32.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정답: ④

* 조선을 둘러싼 러.청.영.일의 각축

(가) 러시아: 1884년 청의 알선 없이 직접 수교하였다. 조선은 갑신정변(1884.12) 이후 더욱 심해진 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고 러시아도 영흥만을 조차하는 대가로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하여 군사 훈련을 담당한다는 비밀 협약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청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영국을 자극하여 거문도 사건(1885)을 불러 일으켰다.

(나) 청: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을 연속으로 진압하고 청군을 주둔시키며 조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심화시켰으며,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9) 체결로 일본보다 더욱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

러나 갑신정변 직후 일본과 맺은 텐진 조약(1885)으로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청과 대등한 조선 파병권을 획득하였다.

다) 영국: 1883년 미국에 이어 통상조약을 체결한 영국은 조.러 밀약설에 긴장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거문도를 3년간(1885-1887) 불법 점령하였다.

(라) 일본: 조선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1876.2)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부산 및 다른 두 곳(원산:1880, 인천:1883)을 개항하고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일본 화폐 사용(부록), 양국의 무제한 유출(규칙),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와 일본 상품에 대한 일시적 면세(규칙) 등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상인의 활동범위(간행이정)는 개항장 10리로 제한되었다(부록).

이후 조선 정부는 국제적인 통상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조.일 통상 장정(무역 규칙)의 무관세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조항이 규정되었기에, 1883년 7월 조.일 통상 장정을 관세권의 설정(협정관세), 방곡령 선포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지만, 일본의 요구로 최혜국 대우 규정도 들어갔다.

㉠ 조.미 수호통상 조약(1882.5) 때에 미국은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 프랑스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때에 수호조규를 곧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청의 이홍장의 소극적 태도와 천주교 포교 문제로 다른 서구 열강에 비해 비교적 늦은 1886년 체결되었으며 천주교 포교도 허용되었다

33. 밑줄 그은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자유 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의회 설립 운동을 펼쳤다.
- ③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④ 황제의 측근 세력을 중심으로 전제 군주제를 지향하였다.
- ⑤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 독립 협회 (1896.7~1898.12)

아관 파천(1896.2)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 등은 '독립신'문을 창간하여(1896.4)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으며,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7).

특히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저탄소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독립 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자강개혁). 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이권 수호), 자유 민권(신체의 자유, 의회 설립과 국민참정권 추진)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1898.10)를 결의하고 고종은 건의문을 받아 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1898.11).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 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공화제 모함). 독립 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 협회(황제 측근 세력 중심, 전제군주제 지향)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189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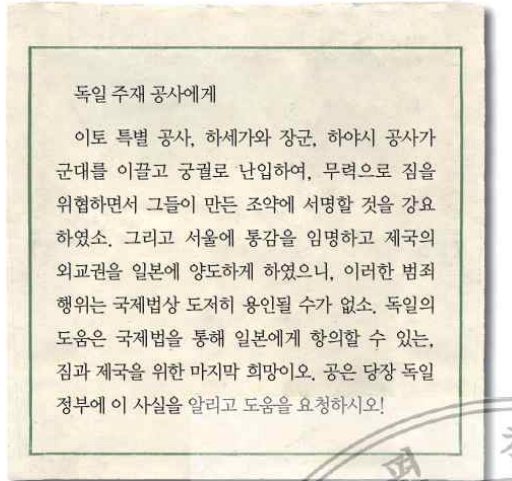
① 헌정 연구회(1905)를 계승한 대한 자강회(1906)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간행하면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③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에 바탕을 둔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결사체인 신민회(1907~1911)는 대성학교(안창호)와 오산학교(이승훈)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인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34. 다음 전보가 발송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대한 제국이 대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 ② 미국과 일본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 ③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 ④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 ⑤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가 강요되었다.

정답: ④

* 을사조약 무효화를 위한 고종의 노력

삼국간섭(1895.4) 이후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일제는 이 때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1902)을 체결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후,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선제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러·일 전쟁, 1904.2).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서울을 점령한 후 한·일 의정서(1904.2)를 강

요하여 한반도 내 군사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내정 간섭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러·일 전쟁 중 일제는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혔다.

일제는 러·일 전쟁(1904~1905)에서 승리 한 후 가쓰라-태프트밀약(1905.7, 일-미), 2차 영일동맹(1905.8), 프츠머스조약(1905.9, 일-러) 등을 통해 한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해 열강의 승인을 얻어낸 후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1905.11).

이에 따라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대한 제국의 중요 법안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내정을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다.

고종은 대한매일신보에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조약의 무효를 세계열강에 통고하였다. 또한 거중조정에 의거하여 조약을 무효케 해달라는 친서를 미국의 험버트에게 전달케 하였으나, 이미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친일화 되었기에 실패하였다. 그 외에도 각국 주재 공사를 이용하여 영·프·독·러 등의 9개국 국가 원수에 협조를 요청하는 밀서를 보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결국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1907). 그러나 특사는 대한 제국에게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조차 거부되었으며 열강의 외면을 받았다.

35. (가)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은/는 지세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지적을 명확히 하여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매매·양도를 간편·확실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 생산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서 조선의 긴요한 시책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조선 총독부 시정 연보 -

- ① 농촌 진흥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 ②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보장해 주었다.
- ③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 ④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시행하였다.
- ⑤ 세계적 대공황으로 인해 일제의 정책이 바뀌면서 중단되었다.

정답: ④

*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지세)을 확보하고, 아울러 방대한 토지를 점탈하려는 목적으로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도지권)을 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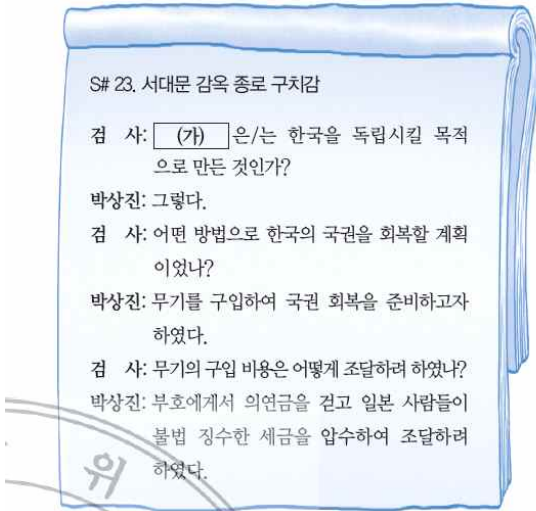
따라서 이 사업은 근대법과 자본주의에 입각한 사업으로 조선의 토지 대부분인 국유와 사유, 문종과 개인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고, 대다수가 소작농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은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지주에게 유리한 식민지 지주제가 심화되었다.

① 일제는 1930년대 들어 소작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키 위한 관제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1932~1940)을 전개하고,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등을 통해 지주의 소작권 제한을 정부가 관리·규제하며 소작농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하고 지주들을 관치로 통제하려 하였다.

③ 이승만 정권기 실시된 농지 개혁(1950~1957)은 토지 재분배를 통해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층을 중심으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주의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여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⑤ 일본 국내의 쌀 부족 문제를 조선에서의 쌀 증산으로 해결하고자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1920~1934)은, 1930년대 들어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쌀 가격 폭락으로 조선의 쌀 수출이 일본의 농촌경제를 악화시키자 1934년에 중단되었다.

36. 다음 시나리오의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무오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②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 ③ 연해주 이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 ④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 ⑤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고자 하였다.

정답: ②

* 1910년대 항일비밀결사 대한광복회

대한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 단체로, 채기중의 (대한) 광복단(1913)과 이시영, 서상일 등 경북 유림이 중심이 된 조선 국권 회복단(1915.1)이 통합하여 출범한, 즉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들을 통합한 비밀결사 체이다(1915.7). 총사령은 박상진이고 양반과 상민이 함께 가입하여 활동했고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대한 광복회는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독립 의군부(임변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 제출 시도)와는 달리 복벽주의(대한제국 재건)를 극복하고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국내는 물론 만주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김좌진 파견). 독립 전쟁에 필요한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의 재산을 빼앗고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걷었으며,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제 경찰에게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해체되고 말았다(1918). 이 때 박상진 등 주요 인물이 검거되고 사형당하였지만 체포를 피한 일부 조직원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 독립 투쟁을 계속하였다.

① 의열단 소속의 김익상은 1921년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③ 3.1 운동 1달 전 만주에서 조소앙, 박은식 등 독립 운동가 39명이 서명한 대한 독립 선언서(무오 독립 선언: 1918.11-음력)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일제에 대한 육탄 혈전을 결의하여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④ 연해주 지역에서는 1911년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으나,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또한 권업회를 바탕으로 군정(軍政) 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1914)를 조직하여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선임하고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독립군의 무장 활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웠다.

37. 밑줄 그은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미국이 운산 금광 채굴권을 가져갔다.
- ② 프랑스가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 ③ 일본이 차관을 강요하여 대한 제국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 ④ 러시아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의 삼림 채벌권을 차지하였다.
- ⑤ 중국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점으로 내지 통상권을 얻어냈다.

정답: ③

* 국채보상운동(1907)

대한제국은 통감부가 설치된 이래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각종 생활 시설 마련과 화폐 정리 사업 과정에서 차관을 강요받아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일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경제적 자주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이에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경제적 구국 운동).

이 운동은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

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그 후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김성희, 유문상 등)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일본 유학생 및 러시아 교민도 참여)로까지 확산되었다. 남자들은 금연으로, 부녀자들은 반지와 비녀를 모아 보상금으로 냈다.

이에 대해 일제는 송병준 등 친일파가 지휘 하던 매국단체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통감부에서 국채보상회의 간사인 양기탁을 보상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결국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강렬하고 자발적인 애국정신이 발휘된 국권회복운동으로 평가된다.

①, ②, ④ 아관파천(1896.2) 직후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함께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은 이권침탈을 가속화하였다.

열강들은 저마다 최혜국 조항을 내세워 광산, 삼림 등의 자원을 비롯하여 철도(프랑스 경의선), 전차, 전기, 전신 등 교통과 통신 부분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러시아는 삼림 채벌권(울릉도, 두만강)을 독점하였고, 일본은 철도 부설권(경부선과 프랑스로부터 경의선 부설권 획득)을 독점하였다. 미국은 전기 시설을 독점하고, 금광(운산)에서는 한국 전체 금 생산량의 25%나 생산하였다.

⑤ 임오군란(1882.6)을 진압한 청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항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38. 다음 자료의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백의(白衣)의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대열에 가담했다. 인파는 광화문 네거리 까지 꽉 매웠다. 우리 눈에는 왜놈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두 만세꾼들이었다. '왜놈 물러가라'는 함성이 지축을 진동했다. 한 대열은 경복궁으로 향했다. 그 후에 들은 말이지만, 광화문 앞에서 만세를 부를 때에는 순사 한 사람이 순사 모자와 제복을 찢어 던지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가담하여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 ①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 ② 신분, 직업, 종교의 구별 없이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
- ③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 ④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⑤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정답: ②

* 3.1 운동

강점 이후 일제의 무단 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민족 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 선언에 고무되어 독립 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 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서울(탑골, 대한문, 광화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 운동은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중들과 학생, 종교인, 상인, 노동자가 참가하면서 점차 지방 도시로 확산되었고, 뒤이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급되었다.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차츰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식민 통치 기관, 친일지주 등을 습격하는 무력적인 저항 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또, 3·1 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외 동포에 의해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

를 탄압하였다(유관순 순국, 제암리 교회 학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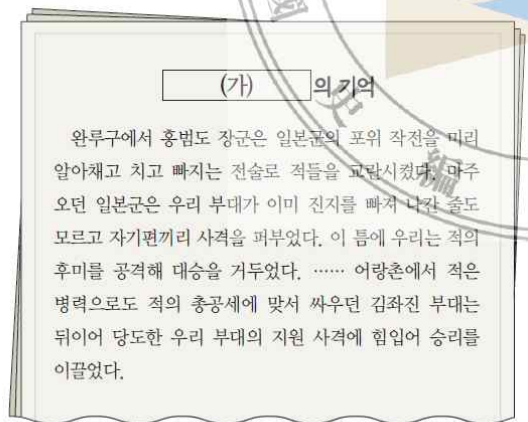
3·1 운동은 각계각층(지식인과 지도층이 주도했지만 노동자, 기생 등도 참여)의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통치방식을 기만적이긴 하지만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다.

①, ⑤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종로 3가 단성사 앞에서 예정대로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 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6·10 만세 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③, ④ 1929년 11월, 전남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각급 학교에 조직된 독서회와 전남 광주 지역 항일 학생비밀결사인 성진회(1926년 11월 결성)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9. (가) 무장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조선 의용대가 화북 지방에서 일본군과 벌인 전투이다.
- ② 대한 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이다.
- ③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긴 전투이다.
- ④ 북로 군정서 중심의 연합 부대가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전투이다.
- ⑤ 조선 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함께 연합 작전을 펼쳐 승리한 전투이다.

정답: ④

* 청산리 대첩 (1920.10)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제 독립군들에 의해 봉오동 전투(1920.6)에서 패배한 일제는 훈춘 사건을 조작하여 약 2만 명의 일본군을 만주에 파견하였다. 일본군의 토벌 계획을 감지한 독립군은 화룡현과 안도현 일대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일본군과 추격전을 벌이던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은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들과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1920. 10.).

독립군은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6일만에 걸친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청산리 전투, 최소 적 1200여명 사살한 독립군 최고의 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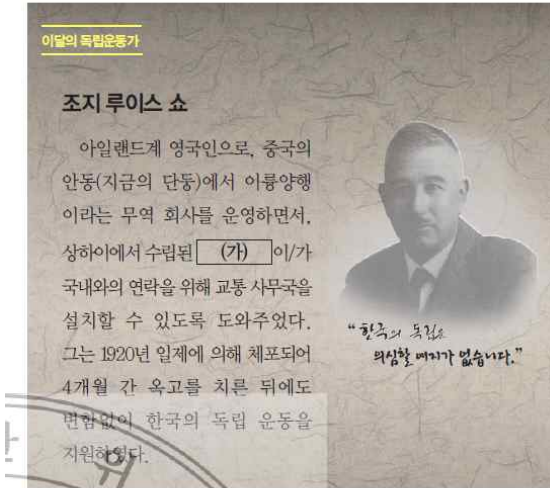
- 백운평 전투: 북로군정서, 협곡 지형 이용
- 완루구 전투: 대한독립군과 연합부대, 유인전술로 자살전을 유도
- 천수평 전투: 북로군정서, 자고 있는 일본군 기습 섬멸
- 어랑촌 전투: 북로군정서 + 대한독립군 및 연합 부대, 고지 선점 섬멸
- 맹개골, 만기구 전투: 북로군정서, 소규모 전투(적 40여명 사살)
- 천보산 전투: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및 연합독립군, 각개 기습 섬멸
- 고동하곡 전투: 대한독립군 + 연합 독립군, 골짜기 매복(적 100여명 사살)

① 조선 의용대(1938년 결성)의 일부는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와 소극적 항일 투쟁에 반발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중국 공산당군(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태항산 전투 등의 반소탕전(1941~1943)에 참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독립 동맹 및 조선의용군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942.7).

③, ⑤ 일제가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수립(1932)하자 조선혁명군(양세봉)은 홍경성.영릉가 전투에서, 한국독립군(지청천) 쌍성보.사도하자.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여 승리하였다.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 ②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통해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③ 북벌주의 이념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 ④ 국외 거주 동포에게 독립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 ⑤ 구미 위원부를 두어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힘썼다.

•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민주 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 분립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초기의 임시 정부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민족 독립 운동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중추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였다.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애국 공채(독립공채)를 발행하고, 국민 의연금을 걷어 들여 군자금을 마련하고 이륜 양행(만주)과 백산 상회(부산)를 거쳐 국내외를 연계하는 조직망인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상해로 전달되었다.

임시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1919)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임시 정부는 애국 공채를 발행하고, 기관지로 독립 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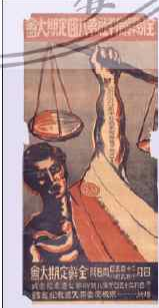
정답: ③

* 이륜양행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륜양행: 아일랜드 사람 조지 쇼가 1919년 5월 중국 단둥에 설립한 무역선박회사로 비밀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③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1912년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으고,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며 대한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북벌주의를 추구하였다.

41. 다음 자료의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사칙(社則)

제2조 본사의 위치는 진주에 둔다.
단, 각 도에는 지사, 군에는 분사를 둔다.

제3조 본사는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 권장, 상호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사원의 자격은 조선인은 하인(何人)
을 불문하고 입사할 수 있다.

- ① 원불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② 민족 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하였다.
- ③ 여학교 설립을 통해 여성 교육에 매진하였다.
- ④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 ⑤ 언론사의 주관으로 진행된 농촌 계몽 운동이었다.

정답: ④

* 1920년대 형평 운동

갑오개혁(1894) 때 신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백정도 평등한 지위를 얻었으나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일제 강점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총독부는 새 호적을 만들면서 백정 출신을 호적에 '도한'으로 써 넣거나 붉은 점을 찍어 차별하였다. 학교 입학 통지서에도 백정 신분을 밝힘으로써 입학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많았다.

이에, 백정 출신들은 경상 남도 진주에서 형평사를 창립하고(1923),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펼쳐 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신분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대중은 여전히 백정 출신을 차별하였으며, 형평 운동에 반대하는 반형평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①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1916)는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립정신을 키웠으며 남녀평등을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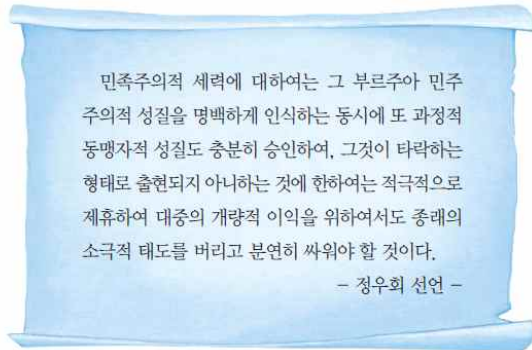
② 1920년대 들어 회사령이 폐지되며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장려(국산품 애용) 운동이 일어났다. .

③ 최초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1898) 설립을 주도한 '찬양회' 는 여학교 설립운동 이외에도 독립협회가 이끈 만민공동회의 자유민권운동에도 참가했다.

⑤ 1920년대 후반부터 궁핍한 농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 아래, 조선일보(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브나로드운동) 등의 언론사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다.

42. 다음 선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추진되어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 ② 청년 단체를 망라하여 조선 청년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 ③ 우리 말과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실력 양성과 무장 투쟁을 함께 추구하는 신민회가 조직되었다.
- ⑤ 임시 정부의 노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렸다.

정답: ①

* 정우회 선언과 신간회 창립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 협동 전선(민족 유일당)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2.)

신간회는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착취 기관 철폐 등을 주장하였고, 사회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지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민중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신간회는 민중 대회 사건 후, 새 집행부의 투쟁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대립이 생겨 해소되고 말았다. 하지만, 신간회는 국내 민족운동 세력의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② 3·1운동 이후 본격화된 청년운동은 청년 단체를 망라한 조선청년연합회(1920.12)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좌.우 연합적 성격으로 물산장려운동 에도 참여하였지만 조선청년총동맹(1924)으로 해체.발전하였다.

③ 정인보.문일평.안재홍 등 민족주의 역사학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④ 신민회(1907~1911)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국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을 꾀하였다.

⑤ 초기 임시 정부는 의욕적으로 활동했지만 교통국과 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의해 와해되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외교 활동에 대한 무장 투쟁론자들의 비판이 거세졌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도 드러났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 정부는 국민대표 회의(1923)를 소집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임시 정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개조파(안창호)와 창조파(신채호)가 대립하여 결렬되고 말았다.

43.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연보

- 1880년 충청도 화덕현 출생
- 1898년 성균관 입교, 독립 협회 가입
- 1907년 대한 매일 신보 논설진으로 초빙됨
- 1914년 한인 동창 학교에서 민족 교육 실시
고구려 유적 답사
- 1928년 무정부주의 동방 연맹 사건으로 체포됨
- 1931년 조선상고사가 신문에 연재됨
- 1936년 뤼순 감옥에서 순국



- 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②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③ 명동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 ④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 ⑤ 민족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정답: ⑤

* 신채호(1880~1936)에 대하여

일찍이 대한협회 회보에 ‘역사와 애국심’(1908)을 기고하며 역사를 애국심의 원천으로 이해하였고,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1908)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후 “조선상고사(1931,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악)”, “조선사연구초(1929,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의 일천년대 제일대 사건으로 파악)” 등의 저술을 통해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였다.

그는 고대사에 살아 숨 쉬는 자주적·주체적인 민족 고유의 사상인 ‘낭가 사상’의 존재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신을 되살려 민족 독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유명하지만 1920년대 이후에는 무정부주의에 경도되어 일제와의 치열한 폭력투쟁을 주장하는 행동가였다.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의 부탁으로 1923년 1월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에서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시하였다. 신채호는 일제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는 전술을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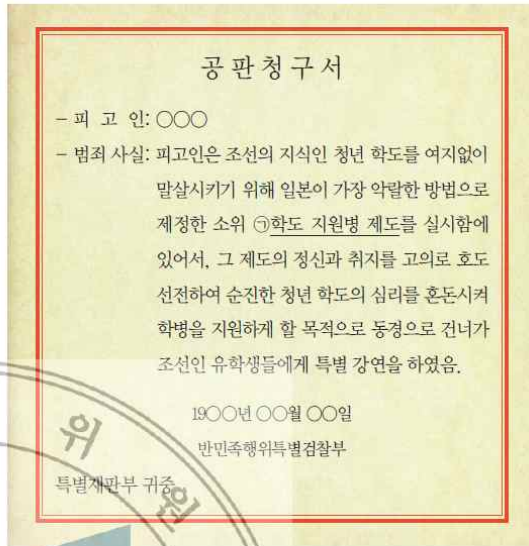
① 의병장으로 국내외에서 항일전을 전개하고 있던 안중근(1879~1910)은,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대표와 회담하기 위하여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그를 사살하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1909.10).

②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인 1920년대 후반 백범 김구(1876~1949)는 침체된 분위기를 깨고자 한인애국단(1931)을 조직하였다.

③ 북간도에 소재한 명동학교는 김약연(1868~1942)이 설립하였다(1908).

④ 박용만(1881~1928)은 1909년 미국 네브라스카에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14년에는 대조선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대비하였다.

44. 밑줄 그은 ㉠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한국인에 한하여 태형령을 적용하였다.
- ② 식량 배급 및 미곡 공출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③ 전국 각지에 신사를 증설하여 참배를 강요하였다.
- ④ 조선 사상범 예비 구금령을 통해 독립 운동을 탄압하였다.
- ⑤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정답: ①

* 학도지원병제(1943)가 실시된 민족말살기

일제는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기존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에 이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을 공포하여 한국인 사상범을 사전에 탄압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1944)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성도 강제 노역조직인 근로보국대(1941)와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고 조선 태형령(1912)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로 1920년 폐지되었다.

45. 다음 선언을 발표한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용장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결의한다.

- 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의하였다.
- ②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처음 보장하였다.
- ③ 독일 항복 후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④ 마지막까지 남아 저항하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 ⑤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가 모여 한국 독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답: ②

* 카이로 회담 (1943.11)

1943년 11월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카이로 회담). 이 회담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의 독립을 처음 약속하였다.

연합국의 한국 독립 약속은 1945년 7월 독일 항복 후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독일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되었다. 미국(트루먼), 영국(처칠), 중국(장제스)의 정상들이 모인 이 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항복을 즉각적으로 요구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묵살했다고 판단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8.6-히로시마, 8.9-나가사키).

또한 미(루스벨트).영(처칠).소(스탈린)의 수뇌들이 모여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 결의한 얄타 협정(1945.2)에 따라 소련도 참전을 결정하고 만주 지역으로 진격하였다(1945.8.9.).

이에 일제는 즉각 연합국에게 항복하였다(1945. 8. 15.).

46. 다음 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서 우리
정부 밑에 모이자. 그리하여 그
지도하에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하여서 신탁 관리제를 배격
하는 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자주
독립을 완전히 획득하기까지 3천
만 전 민족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함.

1945년 8월	8·15 광복
1945년 12월	(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6년 3월	(나)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7년 5월	(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8년 1월	(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내한
1948년 5월	(마) 5·10 총선거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반탁 투쟁

- 제시된 자료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선언문(1946.1.1.)이다.

- 광복(1945.8.15) 직전 비밀결사체 조선 건국동맹(1944.8)을 조직하였던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받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안재홍 등도 참가하였으나 좌익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1945.9)했기에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미군-직접통치, 소련군-김일성을 내세운 간접통치).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김구와 임정의 한독당 세력은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해 반탁 투

쟁의 기선을 잡았다. 임정 세력은 1946년 1월 4일 김구의 성명을 통해 당면 비상대책을 천명하고 임정은 1월 21일부터 비상정치회의준비회를 열고, 우익의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가세하여 2월 1·2일에 모든 우익정당, 사회단체와 중도파 정당들의 연합전선인 비상국민회의가 발족되어 반탁운동을 진행하였다.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1차: 1946.3~5, 2차: 1947.5~8)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론을 내비친 정읍 발언(1946.6) 이후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중도 세력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1946.7) 합작 운동을 추진하여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에까지 이르렀다(1947.10).

그러나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1948년 1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남한은 입국하였으나,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8.15).

47.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로 개정된 헌법이 7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은 정·부통령 직선제 채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① 계엄하에서 통과되었다.
- ②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 ③ 국회의 형태를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 ④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 ⑤ 국회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었다.

1950년 5월, 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로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무소속)이 국회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6·25 전쟁 중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하였다(1952. 1.). 그리고 민주 국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또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국제 공산당원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자유당은 대통령 직선제에다 내각 책임제를 약간 가미한 개헌안(양원제: 참의원.민의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토론없이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1952. 7.).

④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 민의원 선거에서는 관권의 개입으로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본래 2차 개헌(발췌개헌)에 따라 양원(참의원.민의원) 선거가 있어야 하나 6·25 전쟁 직후 국내 정세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참의원 선거는 치르지 않았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이를 부결시켰으나, 자유당은 부결 이틀 만에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을 선언하였다(2차 개헌: 1954).

정답: ④

* 발췌 개헌 (1952.7)

48.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나) 미국은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대가로 대한민국에 군사·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 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②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 ③ 대한민국이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 ④ 대한민국이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다.
- ⑤ 대한민국과 미국이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정답: ②

*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과 브라운 각서 체결(1966) 사이의 역사적 사실

-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1953.7)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내용의 굳건한 방위조약으로,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더욱 미국과의 동맹을 끈끈히 하게 되었다.

- 박정희 정권 때에 미국의 요청으로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을 월남에 파견하였는데, 1966년 2월 월남 정부가 한국에 병력증파를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증파에 앞서 한국안보와 경제발전 등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선행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여 14개 조항에 걸친 보장과 약속을 브라운각서의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한국방위태세의 강화, ② 국군 전반의 실질적 장비현대화, ③ 보충병력의 확충, ④ 증파비 부담, ⑤ 북괴의 남파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⑥ 대한군사원조 이관의 중지, ⑦ 차관 제공: 미국 국제개발처(AID) 차관, ⑧ 대월남 물자 및 용역의 한국조달, ⑨ 장병의 처우 개선문제 등이었다.

이후 베트남 경제 특수와 미국의 차관 제공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①, ④ 노태우 정권기(1988.2~1993.2)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공산권과 수교)이 추진되어 1990년 한소 수교를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또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동년 12월에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③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정부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여 이를 억제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⑤ 노무현 정권(2003.2~2008.2) 때에는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과도 2007년 5월에 체결하였다(일부 분야 한정. 재협상 후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

49. 밑줄 그은 '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회원국 상호 간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이 정부 시기에 세계 경제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 ①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을 실시하였다.
- ② 경제제일주의에 따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을 처음 마련하였다.
- ③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 ④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시행하였다.
- ⑤ 개성 공단 건설을 통하여 남북 간 경제 교류 사업을 활성화시켰다.

정답: ④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김영삼 정부

- 1950년대에 제헌국회와 이승만 정부(1948~1960)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1950~1957).

-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1963~1979)는 경제제일주의에 따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에 시작하여 4차까지 추진하였다.

- 1960년대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 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자유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제철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또 소양강댐과 경부 고속국도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일 협정 체결의 대가로 들어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1970년대에는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구미 공업 단지, 울산 석유 화학 공업 단지, 여수 종합 화학 기지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공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악화된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초 국제 유가 폭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수출 증대(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와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극복하였다.

- 1990년대에 들어서 김영삼 정부(1993.2~1998.2) 때에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 1998년에 김대중 정부(1998.2~2003.2)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개성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 입주)되며 더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50.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라) - (나)
- ③ (나) - (다) - (라) - (가)
- ④ (나) - (라)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③

* 민주화 운동의 연대기

4.19 시민혁명: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3.15 부정 선거),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경무대 앞 시민·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130여명 사망).

이후 서울 등 5개 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지만 시위는 계속되었고, 4월 25일, 서울 시내의 대학교수단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4월 26일 이승만은 결국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이승만 정부는 붕괴하였다(허정 과도정부 수립).

5.18 민주화 운동: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이 야당인 신민당사 일어나자, 여당과 정부는 야당 당수인 김영삼을 국회 제명하였다. 이는 동년 10월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의 반유신 투쟁을 야기하고, 집권층 내에서의 강온 진압 대립 속에 10.26 사건으로 이어지며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살상되며 5월 27일 진압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 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 및 개헌 논의 금지)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